

장애인복지관 등 28개 시설 운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창립 3년 성과와 과제

봉사인력 꾸준양성 '복지 전문화 정착' 독자적 재원·조직체계 아직 역부족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주)이 창립 3년을 맞아 복지사업의 새 전기를 맞고 있다. 복지재단은 11일 오후 2시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창립 3주년 기념 법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과제를 모색한다.

복지재단은 창립이후 시설수탁사업을 전개,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28개의 시설을 수탁받는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중산 산하의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19개, 어린이집 21개, 청소년독서실 12개 등 52개. 복지재단은 중앙교육원이 관리하던 기존의 복지시설에 다 95년 첫째에 2개, 96년에 8개, 97년에 17개, 올 2월에 1개를 수탁받는다 해가

갈 수록 시설수탁의 노후를 쌓아 불교 복지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왔다.

이같은 하드웨어를 갖추면서 복지재단은 각종 공청회와 교육을 개최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노력을 했다. 9차에 걸친 불교복지포럼과 4회의 세미나·공청회 실시하고 불교사회복지교양대학을 설립, 자원봉사(관리)자·불교사회복지

도자·간병인·장외의식 교육·연수를 통해 불교복지이론과 방법론 및 실무능력을 확산시켜 왔다. 또 자원봉사센터를 병행 운영, 자원봉사운동의 확산과 전문 자원봉사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왔다.

한마디로 불교복지정책의 수립과 저변 확대 및 단체·시설의 지원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이뤘다는 평가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전문화와 과학화 및 체계화를 이루고 △특별된 체계의 복지법인으로서 △산재되어 있던 인적 자원 및 시설을 통합한다는 설립 당시의 목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사업결정권의 비독립성과 제한된 인력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구호에 그친 것이 적지 않다. 복지법인은 처음 출범당시의 구성처럼 독자적인 재원과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원 사회부 산하기구로 소속되어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복지시설과 복지

재단과의 관계를 규정한 종령 또는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못해 복지재단의 역할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복지사업의 토대가 되는 복지정보전산화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이며, 1차원 봉사센터는 아직 별 성과가 없는 형편.

복지재단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그간의 복지시설 확보 위주의 사업에서 복지전문가 양성, 각종 복지프로그램 개발, 불교복지정보의 축적 등 소프트웨어 향상에 힘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재단은 서울시 강북구로부터 수탁받은 강북장애인복지관을 4월 10일 개관, 직할시설로 운영함으로써 1차적으로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의 전문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시설종류별로 직영기관을 하나씩 설치해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과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복지재단은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기관, 일시보호소, 차매센터, 상담기관 등 전문 분야의 사업도 개척할 생각이다.

복지재단이 설립 당시의 목적에 맞는 이같은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 종단 및 스님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 조계종 중법제 개정 특위 위원들이 17일부터 개최되는 제130회 임시총회에 상정할 중법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권 규제안 진통예상

조계종 3월 총회 중법개정 쟁점사안 무엇

'행자연령' '비구니 의원 선출법'도 논쟁여지

조계종 중법제개정안 17건이 상정될 제130회 임시총회(17~21일)에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법제개정안 중에는 평평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 조계종 중법제개정특위(위원장 정유)는 지난달 17일부터 3일간 중법제개정안을 심의하는데 이어 5일에도 심의회의를 열어 총회에 상정할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총회 하루전인 16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특위가 총회에 상정할 법안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의 대상으로 전망되는 대목은 총무원장 선거법과 중앙총회의원 선거법, 교구총회의원선거법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규제사항으로 신설되는 "본종 소속승려로서 사실사업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와 도제" 부분. 이는 선학원등 제단과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사업들에 대한 중단행적 참여 규제차원에서 마련된 법안들이다. 그러나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와 도제"라는 조항은 국가법에서도 배제된 "연좌제"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법 개정안도 적지않은 논란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법 제55조(행자교육원 수확자격)의 현행 법은 행자의 연령자격을 "15세이상 50세 이하"로, 행자생활의 기간은 "행자로서 출가 본사에서 5개월 이상 교육 받은자"로 명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원은 "18세 이상 45세이하" "11개월 이상 교육

받은자"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특위는 현행법을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행자교육원의 균을 넓히되 비구(니)계의 수계 자격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승려법 제19조(결격사유)를 강화, "호적상 친권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행자의 자격을 강화 할것을 주장하며 교육법의 개정을 요구한 교육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앙총회의원선거법 중 '비구니 총회 의원 선출' 조항도 상당한 논쟁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현행 중앙총회의원 선거법 제8조에 해당하는 비구니 총회의원 선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 법조준 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 11대 총회 의원 선출시 드러나 총회는 편법으로 전국비구니회에 비구니총회의원 추천권을 부여, 전국비구니회가 추천한 10명을 직능직 비구니위원으로 선출했다.

5일 특위는 법안 심의에서 중앙총회의원 선거법 제8조 전체의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직능직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가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총법상의 기구가 아닌 전국비구니회로부터 중앙총회 직능직위원 비구니 의원의 추천을 받는다는 안이 총회에서 통과 되기에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1만원이면 복동포 한달살이"

평불협-교계연론 금강국수공장 공동후원 캠페인

평불협이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 3월말부터 가동할 흥해복도 사리원시 소재 '금강국수공장'에 대한 후원회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본사를 비롯한 교계 연론사들도 후원 공동캠페인을 펴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

평불협은 이달말 금강국수공장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이미 2월 1일부터 모금활동을 전개 11일 현재 3백여명의 불자들이 동참, 5백7십여만원이 모금된 상태다.

후원회는 후원회원, 일반회원, 운영회원으로 구성되며 매일 1천원 이상 후원할 수 있다. 후원자들이 내는 1천원은 북한 동포 1명이 12일 동안, 1만원은 2명이 한달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한다.

후원금이 모금되면 평불협은 매일 밀가루 20톤(5천달러 상당)을 구입,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금강국수공장에 보낸다. 이렇게 보내진 밀가루는 하루 2천2백여명(6천6백 그릇)의 국수로 생산돼 북한의 재해지역 탁아소와 어린이학교, 조선불교도연맹 불자들에게 직접 배급한다.

법타스님은 "금강국수공장의 가동은 한국불교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누가 한번에 큰 액수의 돈을 내 북한 주민을 돕는 것보다 많은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굶주림에 허덕

이고 있는 북한 주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강국수공장은 불교계에서 장기적으로 북한 어린이와 불자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봉로가 되고 있다. 이미 북한에는 개신교 지원으로 운영되는 2곳과 가톨릭에서 지원하는 6곳의 국수공장이 있으나 북한당국에 의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금강국수공장의 경우는 공장 설립자측의 명의로 북한 주민에게 식량이 전달된다.

도광선 기자

"제가법사 장점살려 '틈새포교' 해야"

서울·경기 포교사연수회서 제기

"포교사는 스님의 보조가 아니라 스님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서 존재 의의를 찾아야 한다."

8일 열린 서울·경기지역 포교사연수회에서 김경호 포교연구실 연구과장은 '불교포교의 현황과 과제'란 발제를 통해 "스님들의 관심과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제가포교사의 활동 몫이 있다"며 "틈새포교"를 주문했다. 김씨는 포교사는 스님들과 달리 포교

대상들과 생활상의 정서가 일치하는 점을 살려야 하며, 특히 직장·직능법회에 대한 제가포교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대 병인 교도소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신명조직을 형성해야 할 분야는 무수히 많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 강화라는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포교사단 사무국도 포교사의 전문화를 위해 포교 분야를 청소년 군대 교도

소 등 4부문으로 나눠 전문강좌를 개설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임원현 사무국장은 15일 세미나에서 발표한 '포교활동의 바람직한 모습'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분야별 전문교육은 정기적인 연수와 달리 희망자에 한해 5월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교사단은 지금까지의 연수가 형식적인 '출석체크'와 종무행정의 사달에 머물렀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연수를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했다. 참석한 포교사들도 세미나식 연수에 대해 신선한 변화라며 반겼다.

정성문 기자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쉼(냄새)은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태중호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퀸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태초에 신성한 산소산인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준듯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조(創造)시켜줍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장부족(伸張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다. 즉 내분비계가 무너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한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야말로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고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 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비(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

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민첩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질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때 빗방이 결코 막힌다.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뼛 쪼뼛이다.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15.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6. 변비가 있다.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

인천시 북구 선곡동

저는 56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종래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향 오범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 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며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시 "향비"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